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꽃'에 호격 조사 '야'를 붙여 말할 때 [꼬차], [꼬다], [꼬사] 중에서 어느 발음이 맞는 발음입니까?

(송경안, 광주시)

**㉮** 호격 조사 '야'는 손윗사람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 주로 쓰는 말이므로 보통은 '꽃야'라는 말을 쓸 일은 없고 의인화하여 부를 때나 쓸 것입니다. 보통은 쓰지 않는 말이므로 이 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의도적으로 발음하면 세 발음이 모두 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꼬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꼬다]는 '꽃'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처럼, 즉 대표음으로 발음될 때처럼 [꼐]으로 되고 여기에 [아]가 붙은 발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예는 국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표준 발음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잣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다]  
곶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붙임] 결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겁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꽃아’가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꼬다]라고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받침 뒤에 모음이 와야 한다는 것과 그 모음은 실질형태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아’는 받침으로 ‘ㄷ’이 있으며 뒤에 모음 ‘ㅏ’가 오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즉 실질형태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꼬다]라는 발음은 맞는 발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소 다른 예이지만 ‘꽃아가다’를 [꼬다가다]라고 발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꽃이’, ‘꽃을’과 같이 다른 조사가 붙은 예들도 [꼬디], [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꼬디], [꼬들]보다 [꼬다]가 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호격 조사 ‘아’가 다른 조사나 어미와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세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는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되는 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의 ‘은/은’, ‘을/을’, 어미의 ‘-아/-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후대에 모음조화가 약화되면서 짝이 없어진 경우가 많지만 ‘잡아/먹어’처럼 어미 ‘-아/-어’는 현대국어에서도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호격 조사 ‘아’는 어미 ‘-아/-어’와 외형상 동일한 모습인데도 ‘어’ 짝이 없어 항상 ‘아’로만 나타나 이미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격 조사는 다른 조사나 어미와 달리 앞의 말과 사이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곧 대표음으로 발음이 날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꼬다]가 덜 어색하게 느껴지는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준 발음법에서 호격 조사 앞에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꼬다]는 맞는 발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꼬사]는 ‘꽃’이 [꽃]으로 되고 여기에 [아]가 붙은 발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꽃이’, ‘꽃을’을 흔히 [꼬시], [꼬슬]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규정을 역시 표준 발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13항**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각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쫓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받침은 조사와 연결될 때 제 음가대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마침 예 중에 ‘꽃을’이 있으므로 ‘꽃’은 [꽃]으로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받침의 ‘츠’을 [시]으로 발음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널리 퍼진 발음이라 해도 맞는 발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꽃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꽃]을 인정할 이유도 없으므로 [꼬사]는 맞는 발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꼬다]와 [꼬사]에 비해 [꼬차]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없는 발음입니다. 따라서 ‘꽃아’의 발음은 [꼬차]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남호)

**물음** 사람의 다섯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병주, 서울시 석관동)

**답** 사람의 손가락을 나타내는 말은 고유어 ‘손’이나 ‘손가락’이 붙는 말과 한자어 ‘지(指)’가 붙는 말, 그리고 이들이 합성된 말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	고유어 '손(가락)'과 결합	한자어 '지(指)'와 결합
첫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손	엄지, 대무지(大拇指), 대지(大指), 무지(拇指), 거지(巨指), 벽지(擘指)
둘째 손가락	집게손가락	검지, 두지(頭指), 식지(食指), 염지(鹽指), 인지(人指)
셋째 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장짓가락	중지(中指), 장지(長指)
넷째 손가락	약손가락, 약손	약지(藥指), 무명지(無名指)
다섯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새끼손	계지(季指), 소지(小指), 수소지(手小指)

(이승재)

**물음** '언제 없어질런지/는지 저 철조망'이라는 표현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숙, 서울시 상도동)

**답** '없어질는지'가 맞습니다. 위 표현에서는 철조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받침이 없는 용언과 어울려 쓰이는 어미는 '-르는지'입니다. '없어지다'라는 용언에 '-르는지'를 결합하면 '없어질는지'가 됩니다. 이러한 예는 다음 문장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 그 사람도 과연 같이 떠날는지.
- (2) 반가운 손님이 내일은 올는지.

위 (1), (2) 문장에서는 모두 받침이 없는 동사 '떠나다'와 '오다'에 어미 '-르는지'를 결합하여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르는지'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받침이 있는 용언과 어울려 쓰이는 어미는 '-을는지'입니다. 이는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 환자가 내일은 아침을 먹을는지.

(4) 그가 다음 작전에서는 그 임무를 맡을는지.

(이승재)

**물음** 'century'를 한글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재영, 서울시 장충동)

**답** 외국에서 쓰이는 단어를 한글로 옮겨 적을 때는 먼저 그 단어가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옮겨 적으려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굳어져 널리 쓰이고 있는 외래어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되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는 기준이 될 '외국어 표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어였던 단어도 점차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외래어로 정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외래어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어 단어들이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면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century'는 우리말에 '세기'라는 말이 있으므로 굳이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할 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고유명사 등의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래어로 보아야 하므로 한글로 옮겨 적을 때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적어야 합니다.

'century'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적으면 '센추리'가 됩니다. '-tu-'의 발음이 '[tʃu]'이어서 '츄'로 적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에서는 'ㅈ'이나 'ㅊ' 뒤에서 'ㄱ'과 'ㄲ'이 발음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 'ㄱ'로 발음됨

니다. 그래서 'juice'도 '쥬스'로 적지 않고 '주스'로 적는 것입니다.

(이승재)

**▶** “다음 물음에 ‘예’, ‘○○○’로 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 ‘예’에 상대 되는 말은 ‘아니오’입니까, ‘아니요’입니까?

(황문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 ‘아니요’가 맞습니다. 먼저 ‘아니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으로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의 뜻이며, 뒤에 종결형 어미 ‘-오’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입니다. 이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형용사 ‘아니다’가 어미 활용에서는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기원적으로 형용사 ‘아니다’는 명사 ‘아니’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명사) + 이-(서술격조사)’의 구조를 가지던 말이 근대국어 말기에 형용사 어간 ‘아니-’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 맞춤법 제15항은 종결형 어미에서 사용되는 어미는 ‘-오’로 적고, 연결형 어미에서 사용되는 어미는 ‘-요’로 적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니-’ 뒤에 붙는 ‘-요’는 종결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로, 주로 ‘해’ 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 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 줍니다. 만약 상대가 격식을 갖추어야 할 분이라면 잘 쓰지 않습니다. ‘아니요’는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감탄사로 쓰이며,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용례를 통하여 그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나는 홍길동이 아니오. 그는 나의 보호자가 아니오.

아니요 : “철수야, 네가 유리창을 깨뜨렸지?”, “아니요, 제가 안 그랬

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니오 : 서술어로만 쓰임. ‘아니 + 오’의 형태로 종결형 어미임.
- (2) 아니요 : ‘아니 + 요’의 형태로, 감탄사임. 주로 ‘예’에 상대되는 말로 쓰임.
- (3) 참고 사항
  - 종결형 어미에서는 ‘-오’로, 연결형 어미에서는 ‘-요’로 적는다.  
예 :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 ‘-십시오’의 종결형 형태에서는 언제나 ‘-오’로 적는다.  
예 :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의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요’를 쓴다.  
예 : 어서 가요. 잠깐만 기다려요.

(최용기)

**물음**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술만 주는 대로 ‘○○○○’ 받아 마시다가 금세 취해 버렸다.’에서 ‘○○○○’에 ‘넙죽넙죽’이라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눹죽눹죽’이라고 써야 합니까?

(장용수, 서울 광진구 모진동)

**답** ‘넙죽넙죽’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눹죽눹죽’이라고 표기할 경우도 있지만, 질문하신 용례에서는 ‘넙죽넙죽’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넙죽넙죽’과 ‘눹죽눹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넙죽넙죽 : 부사. ①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뉘름뉘름 벌렸다 닫았다 하는 모양. ②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는다.

②몸을 바닥에 너부죽하게 대고 닝큼닝큼 엎드리는 모양. ¶아낙들은 연방  
 녀죽녀죽 절을 해 댄다. ③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그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녀죽녀죽 할 말은 빠짐없이 했다.

넓죽넓죽 : 부사. 여럿이 다 길쭉하고 넓은 모양 ¶떡을 넓죽넓죽 썰었다.

이 두 단어의 구분은 '넓다'라는 뜻이 그 단어에 들어 있으면 '넓-'으로 표  
 기해야 하고, 그 단어와 거리가 멀어졌으면 '넙-'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각각  
 의 용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넓- : 넓둥글다(물체의 모양이 넓죽하면서 둥글다),  
 넓적넓적(여럿이 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은 모양),  
 넓적다리(다리에서 무릎 관절 위의 넓은 부분),  
 넓적부리(오릿과의 새, 부리가 주걱처럼 넓적한 것이 특징임),  
 넓죽이(얼굴이 넓죽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넓죽하다(길쭉하고 넓다)

넙- : 넙적거리다(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닝큼닝큼 벌  
 렸다 닫았다 하다),

넙적대다(=넙적거리다),

넙죽(①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닝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 ②몸을 바닥에 너부죽하게 대고 닝큼 엎드  
 리는 모양. ③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넙죽거리다(①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  
 게 닝큼닝큼 벌렸다가 닫았다 하다. ② 몸을 바닥에 너부  
 죽하게 대고 닝큼닝큼 엎드리다),

넙죽대다(=넙죽거리다)